

# 고령화 가속... 광주, 9년 뒤 초고령사회

### 광주 고령자 가구 18.7%... 지난해 65세 이상 고용률 29.7% 전남 2012년 초고령사회 진입... 2038년 40%대 접어들어

광주가 급격하게 늙고 있다. 2년 뒤인 오는 2021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그로부터 7년 뒤 2028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고령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광주는 2021년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4%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뒤 2028년 초고령사회(20%), 2038년에는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고령인구 비율은 동구가 21.5%로 가장 높았고, 광산구가 8.6%로 가장 낮았다.

올해 12.9%인 광주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45년 35.2%로 3배 가량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고령인구 비율 20%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2038년 40%대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2.3%에서 2045년 45.3%로 두배 이상 높아진다. 2045년에는 광주는 3명당 1명, 전남은 절반 꼴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인 셈이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38.9%)이었고 보성(35.9%), 함평(34.2%), 곡성(33.9%), 신안(33.8%) 순이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년부양비(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광주는 올해 17.6명에서 2045년 64.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다.

전남도 올해 34.1명에서 2045년 97.3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생산 가능 연령인 15~64세 인구수와 65세 이상 인구수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비율의 경우 광주는 올해 18.7%에서 2045년 42.2%로 늘어나고, 전남은 올해

#### ■ 광주·전남 장래 고령인구 추이 (2019~2045, 단위: %)



33.6%에서 2045년 60.8%로 증가한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비율은 광주는 올해 6.5%에서 2045년 15.8%로 증가하고, 전남은 올해 13.8%에서 2045년 24.2%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지역 65세 이상 고용률은 광주 29.7%, 전남 47%로 집계됐다. 지난해 광주지역 65세 이상 18만8000명 가운데 5만6000명이 일자리를 구했고, 전남에서는 38만9000명 가운데 18만3000명이 취업했다. 두 지역 모두 전년보다 고용률이 소폭 떨어졌고, 전남지역은 10년 전

(51.1%)보다 4.1%포인트나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요양기관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광주 2809곳, 전남 3367곳의 요양기관이 운영됐다. 광주지역에서는 북구(779개)에 요양기관이 가장 많았고, 전남 지역은 여수(468개), 순천(444개), 목포(402개) 순으로 나타났다. 구례(58개), 강진(71개), 함평(73개) 등지에는 상대적으로 요양기관 수가 적었다.

노년여가 복지시설 여건은 광주·전남이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지역 노인 1000명당 복지시설 수는 5개소로, 전국 평균 6.1개소 보다 낮았다. 지난해 전남지역 평균 복지시설 수는 노인 1000명당 16.5개소로, 전남(16.8개소) 보다 0.3개가 줄었다. 함평(26.1개소), 곡성(26개소), 구례(25.6개소)가 인구에 비해 많은 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목포(4.4개소), 여수(7.4개소)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60.69 (-1.49)
- ↑ 금리(국고채 3년) 1.52 (+0.01)
- ↑ 코스닥 669.34 (+0.83)
- ↓ 환율(USD) 1164.50 (-2.10)



### 광주은행, 소외이웃 위해 천만원 기부금 기탁

#### 순천 '사랑애 김장 나눔 축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사진 왼쪽)은 18일 오전 순천시청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허석 순천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 '사랑애 김장 나눔 대축제'에 1000만원을 기탁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한 기부금은 오는 26일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리는 '사랑애 김장 나눔 대축제'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이번 '사랑애 김장 나눔 대축제'는 순

천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들과 함께 버무린 김장 김치를 지역·계층별 대상자를 고루 선정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한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의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 밀착영역을 통해 지역민과 동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100년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자 광주·전남 2000명 돌파 국내기업 기술 국산화 지원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의 '기술 국산화'를 돕기 위해 출시된 '필승코리아 펀드' 광주·전남 가입자가 2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15일 집계된 지역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자는 광주 1198명·전남 789명 등 총 1987명이다. 전국 가입자(2만5586명) 수의 7.7% 수준이다.

광주·전남지역 가입금액은 22억8200만원으로, 지역에서는 지난 9월30일에 가입 금액 20억원을 넘겼다. 전국 판매수탁고는 1000억원을 돌파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지난 8월14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100% 우리 자본'을 내세워 출시됐다. 최소 1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는 이 펀드는 운용보수의 50%는 공익기금으로 적립돼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기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이 펀드에 가입한 이후 대중의 관심이 쏠리면서 김병림 농협중앙회장 등 농업인 단체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가입이 이어졌다. 15일 현재 수익률은 6.98%(모펀드 기준)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11월 현재 국내 기업 64개사에 투자하고 있다. 이중 소재·부품·장비기업은 44개사로, 전체 투자액 1000억 중 54%가 이들에 쓰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삼성전자 광주교육센터 등 4곳서 SW 우수인재 배출



삼성전자는 18일 광주사업장 교육센터에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광주교육센터에서 수료한 교육생은 36명이다. (삼성전자 제공)

#### 광주 36명 수료... 3기 선발 중

삼성전자가 1년의 교육 끝에 소프트웨어(SW) 우수 인재들을 처음으로 배출했다. 삼성전자는 18일 광주교육센터 등에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1기 수료식을 했다. 광주교육센터에서 수료한 학생은 36명이다.

SSAFY는 청소년 교육을 테마로 한 삼성전자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도 키우는 차원에서 지난해 시작했다.

교육과정은 1년이다. 1학기는 기본기를 다지는 코딩 기본 교육을, 2학기는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수행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생 전원은 매달 100만원의 지원비를 받는다.

SSAFY 1기는 지난해 12월 광주, 서울, 대전, 구미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선발된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해 200여명이 IT기업, 금융회사 등에 조기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 상반기에는 삼성 신입공채 26명을 포함해 KT, 네이버, IBK기업은행 등 다양한 기업에 채용됐다. 하반기에도 신한은행, 대보정보통신, LIG넥스원 등 20여개 기업에서 채용 전형시 SSAFY 우대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제현용 SSAFY 상무는 "수료생들은 1년간 매일 8시간씩의 강도 높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으며 열정과 끈기를 겸비했다"고 말했다.

SSAFY는 19일부터 3주간 잡퍼머를 운영해 교육생들이 취업역량을 스스로 분석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취업상담, 면접스터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다음달 4-5일 이틀간 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잡엑스포를 열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SSAFY 3기 교육생을 선발 중이며, 내년 1월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AI·바이오헬스로 광주 산업구조 전환"

#### 김성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광주 산업지도가 AI·공기산업·바이오헬스로 바뀔 것입니다." 김성진(사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1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기술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기반 확충, 기술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광주 투자와 인력이 모이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성과로 AI산업 기반 구축, 공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확충 등을 꼽았다. 특히, 1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과 에너지산업 종합지원센터(200억원) 유치에 최대 성과라고 강조했다.

단기 과제로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공기산업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광주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투자유치 전문가 50명 가량을 확보할 수 있고, 이들은 국내의 기업 유치에 전력을 할 것"이라며 "성장 한계에 다다른 광주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예비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학교·병원·유치원·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 공기업 개선을 위해 산업별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기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유발 8592억원, 부가가치 4561억원, 고용 5292명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